

KES '99인터뷰

제30회 한국전자전개막에 즈음하여



본회 강진구 회장

“정보통신기술혁명으로 풍요로운 21세기를!”

[Innovating Information Technology for a Better 21C]



1. 진흥회 주최로 열리는 '99한국전자전 의미는?

- 올해는 우리나라에 전자산업이 태동한지 40년, 「한국전자전」 개최 30년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뉴밀레니움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이번 「전자전」은 향후 지구촌 정보화 사회를 이끌 디지털 기술혁명의 전개상황을 생생하게 미리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이번 '99 한국전자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미국 등 14개국 400 여개 업체가 최근에 개발된 신제품을 많이 출품하고 있어 국내외 많은 고객들에게 새천년을 맞이하는 전자정보산업의 비전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 특히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제2의 경제도약의 선봉에서 노력하는 우리 전자·정보산업의 1999년 한해의 결실을 펼쳐 보이는 '99 한국전자전(KES '99)은 무엇보다도 세계 전자·정보산업의 빠른 기술 개발 속도를 실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한국전자전은 한해 동안 개발한 첨단 기술과 제품들을 펼쳐 보임으로써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함은 물론 세계 시장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혁명으로 풍요로운 21세기를!”이라는 주제 하에 열리는 이번 전자전은 무엇보다도 개최 30주년을 맞이하는 국내 최고의 전통과 최대 규모의 종합전자전문전시회로서 수출 증대 및 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최첨단 기술전 사회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입니다.

2. 금년 한국전자전의 특징은?

- 개최 30주년 및 전자산업 태동 40주년을 맞이하여 “정보통신기술혁명으로 풍요로운 21세기를!”이라는 주제하에 개최되는 '99 한국전자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미국 등 14개국 400여개 업체가 최근에 개발된 신제품을 많이 출품하고 있어 국내외 많은 고객들에게 새천년을 맞이하는 전자정보산업의 비전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 이번 전자전은 국제 전문전자전인 만큼 거래상담의 편의 등 전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생활전자관, 정보통신관, 산업전자관, 전자부품관 등 주요 그룹전시관외에도 우수개발 국산화 부품관, 대만공동관, 홍콩공동관 등을 운영, 해외 바이어들과 관람객들이 일목요연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99 한국전자전(KES '99)은 아시아 주요 전자전(일본 10.7-10.11, 대만 10.8-10.12, 홍콩전자전 10.12-10.15)과 시기적으로 연계되어 해외바이어들의 순회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 새 천년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이번 「전자전」은 향후 지구촌 정보화 사회를 이끌 디지털 기술 혁신 제품들이 대거 선보여 차세대 전자시장 선점을 위해 앞선 기술력을 국내외에 알리는 홍보의 장이라는 것이죠. 이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생활양식을 어떻게 바꾸어나가는가를 체계적으로 보여 주면서 디지털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을 관람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식시켜 준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 또한 중소기업체 육성을 위해 “우수 신개발 국산 전자부품 특별전시” 코너를 구성, 우수부품들을 국내외 수요자에게 대거 선을 보임으로서 수출확대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저의 진흥회에서는 인도의 전자산업사절단, 한일 전자산업협력단 등 해외의 그룹바이어들을 유치

하여 전자전 동안 투자 및 수출상담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이번 전자전의 부대행사로 국산 디지털 TV 수상기 및 방송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새천년을 열어갈 꿈의 디지털TV”라는 주제로 “디지털TV 시대 개막” 세미나가 개최되며 “전자산업 40주년 및 한국전자전 30주년 기념 리셉션 및 전자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이 실시됩니다.

3. 금년 한국전자전의 출품동향은?

이번 전자전에는 14개국 400개사 (외국 127개사) 참가하며 국내의 주요 업체로는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Philips, Sony, JVC, Molex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선보일 주요 출품동향은 크게 다섯 가지의 큰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차세대 디지털 A/V 제품입니다.
- ② 정보화사회를 앞당기는 정보통신제품입니다.
- ③ 세계 최고수준의 시장점유를 자랑하는 국산 전자부품입니다.
- ④ '99년 최초로 개발되어 “우수전자부품”으로 선정된 품목입니다.
- ⑤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4. 전자산업 최근 동향은?

- 지난해는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국내 전자, 정보통신업계가 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출의 기반이 되는 내수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었고 수출마저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동남아시아의 침체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울

해 들어 기업의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체질개선 효과가 가시화 되고 세계경제호전 및 국내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출, 내수시장의 확대로 국내외 여건이 나아지면서 우리 전자, 정보통신산업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전자, 정보통신산업의 수급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한 내수시장 확대 및 투자회복과 미국 경기호조 지속, 일본 및 아시아 시장의 경기안정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지속으로 크게 호전될 전망입니다.

- 특히 전자수출은 미국, 일본, 동남아 등 주력시장이 살아나면서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산업인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가격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Y2K수요, 세계 반도체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급감소에 따른 세계수요 증가와 제품의 세대교체에 따른 평균단가 상승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 LCD)는 물건이 없어서 수출을 못할 정도입니다. 미국 중산층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보급형 PC는 현지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제2의 컴퓨터수출 전성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99. 8월누계로 반도체는 13.4%증가한 12,090백만불, 컴퓨터는 523% 증가한 986백만불, LCD는 236% 증가한 1,710백만불, 휴대폰은 153%증가한 2,159백만불을 기록하여 이들 4대 주요품목이 전자수출의 52%를 차지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외생산이 늘고 있는 영상기기를 제외한 백색가전 품목의 수출이 신시장 개척으로 호조세로 접어들었으며 컴퓨터업체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사업개편 등을 통한 경영내실화 추진,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비중확대 노력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5. 전자산업의 수출전략화를 위해서는?

- 첫째로 세계시장을 주도할 제품을 개발하고 차세대 주력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즉, '99년 상반기에 세계시장점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64M 반도체, TFT-LCD, CDMA 휴대폰 등의 경우에서처럼 세계시장 급성장 예견,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한 결과 상기 3개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산업 수출의 18.4% 차지('99 상반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1세기는 디지털 멀티미디어제품이 주도할 전망인 바, 현재시점에서 기술환경과 수요변화의 정확한 예측 및 투자로 비교우위확보가 절실합니다.
- 둘째로 부단한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 생산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고기술제품의 R&D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 셋째로는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98년 현재 우리 전자산업은 세계적으로 제 6위의 전자산업 생산국 이면서도 핵심부품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전자산업의 기반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대일 무역역조가 더욱 심화되어 우리 전자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진흥회에서는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한·일 산업협력을 강화하여 유망부품(차세대 전지, 이동통신부품, 광부품, 박막부품 등)과 휴대폰 부품(크리스털, Saw필터, 배터리), 반도체 소재(감광제, 에폭시몰딩컴파운드), 가전 등의 핵심부품(레이저다이오드, 고압다이오드, 튜너용 반도체)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첨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우리 전자산업의 현 수준은?

- 우리 전자산업이 차지하는 국민 경제적 위치는 부가가치 생산액을 기준으로 볼 때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년에는 9.2%, 92년에는 14.0%, 그리고 지난 98년에는 23.1%로 그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수출에서는 역시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년에 15.8%, 92년에 27.0%, 그리고 지난해에는 29.2%로 높아져 전체 수출의 1/3 수준으로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리딩산업으로 위치를 굳혔습니다.
- 세계적인 위치를 보더라도 생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해에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에 이어 세계 6위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중 가전용기기 부문은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이며 전자부품의 경우 역시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전자제품의 기술적 수준을 보면 가전용기기는 최근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가전, 컴퓨터, 통신, 방송 등의 융합제품인 신개념의 가전용기기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CTV, VCR,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등은 세계수준에 올라있는 제품들이고 최근의 디지털 TV, HDTV, DVDP, PDP TV 등 디지털화 제품들은 세계 수준을 능가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 전자부품 분야에서는 '99년 상반기 현재 64M-DRAM 43.0% 및 TFT-LCD 34.0%등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용 제품의 경우 CDMA 휴대폰이 67.5%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선진국 및 경쟁국에 비해 산업용기기 부문은 여전히 취약한 것이 사실이며 고정밀, 초소형 등의 부품과 관련한 소재산업도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7.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나?

- 중소기업은 현재 업체수나 종업원수 기준으로 많은 비중을 기록하여 높은 국민경제적 비중을 차지하며, 고용, 생산 등 모든 면에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한 재무구조와 만성적인 자금난, 핵심기술개발능력 취약,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2010년까지 제조업 부문에서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성장률이 대기업 성장률을 상회하고 2003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 고용, 수출 등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4.0%, 71.6% 그리고 48.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우선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갖추려면 첫째, 기술개발과 사업전환을 통한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꾀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기반 확충,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의 구조전환 촉진, 21세기형 벤처기업 육성, 기업간 협력 강화 및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수출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시적 수출지원정책을 구체화하여 집행할 수 있는 현장수출지원사업 발굴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수출마인드 제고 및 수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수출실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수출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운영으로 수출 참

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제고를 위한 해외 틈새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책으로 전문업종 중심으로 수출 성과가 큰 해외 유명전시회, 박람회 참가 등 직접 지원 및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을 통한 해외홍보기회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8. 전자산업 해외투자 현황은?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입규제의 심화와 원화절상, 임금·지가 등 요소비용의 상승, 노사분규의 심화 등 국내경제여건의 악화 등에 따라 9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98년말 현재 전자산업의 해외투자는 투자기준으로 총 1,291건, 4,232백만불로 제조업 전체에서 건수로 22.1%, 금액으로 3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최근까지의 해외직접투자는 시장확보 및 생산거점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집중되어 왔으나 세계적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현지생산 및 연구개발과 경영의 현지화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화되고 있는 국제경쟁 및 글로벌화 등의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고, 선진기술의 습득을 통한 기술우위확보, 선진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등 세계경영차원에서의 기업들의 보다 능동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98년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전체건수는 71건, 전년대비 65.5% 급감하였으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IMF이전 중장기 계획에 따른 북미, 유럽지역의 투자재개와 신시장개척을 위한 투자로 순투자금액은 339백만불을 기록하여 '97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외환위기 전인 '96년 대비 금액면에서는 82.3%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지역별 동향을 보면 기존 전략지역인 북미지역의 시장확대를 위한 대기업 위주의 신규투자가 집중되어 순투자기준으로 185백만불을 기록, 전년대비 123.3% 증가를 보였으며 동남아, 중남미 등 외환위기 지역의 시장위축으로 투자가 급감하여 아시아지역의 경우 108백만불, 중남미의 경우 0.2백만불을 기록, 각각 53.5%, 92.1%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부문별 동향을 보면 가전의 경우 IMF 이전의 증장기 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전년대비 648.6% 증가한 144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전자부품의 경우 반도체, 브라운관 등의 설비증설과 판매법인 투자확대로 106.9% 증가한 156백만불로 나타났습니다.
- 투자규모별 동향을 보면 십만불미만의 투자건수 비중이 '97년의 24.8%에서 35.2%로 증가한 반면 해외투자의 주류를 이루는 십만불~백만불의 투자건수 비중은 42.2%로 점차 감소추세이며 천만불이상의 투자는 건수로 8건, 11%의 비중을 보였으나 금액으로는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비해 자금확보가 용이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형투자가 전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9. 진흥회의 구체적인 국제협력사업 방안은?

- WTO체제 출범이후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 각국의 전자산업관련 단체 및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제반 제도 및 법령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하고 향후 세계전자산업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과 이에 따른 역량강화를 위해 이해당사국간의 적극적인 국제협력활동을 전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진흥회는 아시아지역 15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전자, 통신부문 민간 협력기구인 아시아전자연맹(Asia Electronics Union)에 적극 참여하여 동지역의 전자, 통신 기술분야의 쌍무 및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전자, 정보통신 기술 교류, 포럼개최, 기술인력파견, 향후 아시아지역의 전자, 정보통신 발전방안 모색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협의체 활성화를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 또한 AEA, EIA, EIAJ, IAEI 등 세계각국의 전자산업관련 단체들의 모임인 WEF(World Electronics Forum)에 참여하여 세계전자산업의 현황파악, 정보교류 및 한국전자산업의 위상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 주요지역의 유관단체 및 업계와의 협력증진을 위해 한/EU(EECA) 전자산업 협의회, 한/일(EIAJ) 전자산업 협의회 등 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첨단기술개발 동향, 양국 협력강화방안 모색 및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투자확대, 교역증대 및 기술협력을 위해 해외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홍콩, 대만, 일본 등 아시아지역 주요 전자전개최국들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일정연계, 바이어유치, 홍보활동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공조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10. 전자산업 제도약을 위한 발전 과제가 있다면?

-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자산업이 세계 생산 6위 라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우선 반도체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기술집약적인 비메모리 부문은 매우 취약합니다. 그 동안 우리의 주력산업인 가전부문과 범용일반부품은 대량생산 체제로서 경쟁력은 유지해 왔으나 구내 고임금과 후발개도국의 진입 확대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기기 등 산업용기기는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여 본격적인 성장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자산업이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기술우위의 경쟁력 확보와 그에 필요한 인력 양성입니다.

둘째, 첨단 정보통신 산업으로의 구조 고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핵심부품 및 소재를 국산화해야 합니다.

넷째, 전자산업의 글로벌 경영체제 확립입니다.

11. 향후 전자업계의 대응방향은?

□ IMF체제는 우리에게 분명 시련이지만 이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70년대 오일쇼크를 극복한 경험이 있고 질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도 풍부하게 보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함께 투철한 상황인식입니다. IMF체제하에서 21세기를 맞게 되는 우리 전자산업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기술개발로 대표되는 경쟁력 강화입니다.

21세기의 세계경제는 기본적으로 WTO체제에 바탕을 둔 국경 없는 단일시장이 형성될 것이며 산업구조는 정보통신, 서비스 위주의 지식집약형으로 고도화되고 휴대정보단말, 원격교육, 전자화폐 등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하는 신산업이 주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립에 실패하면 더 이상 생존 할 수 없게 됨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품목구조를 고도화시키는 한편 제2, 제3의 반도체와 같은 전력상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산의 70%를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전자산업으로서는 선진국에 편중되어 있는 수출시장의 다변화도 안정적 수요 확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최근 논의되고 있는 뉴라운드 협정 등 국제규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양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 외 동종업계간의 연구개발 공동수행, 해외전시 공동참가 등 경영합리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적극 도모하는 것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경쟁력강화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광범위한 컨센서스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